

美 사상 최대 '反 이민법' 시위

100여개 도시서 200여만명 참가 의회에 "불법체류자 합법화" 촉구

미국 내 1천100만~1천2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9일에 이어 10일 미국 전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민자들의 존엄을 위한 행동의 날'이란 구호아래 수도 워싱턴을 비롯, 전국 100여개 대도시와 중소 도시에서 열린 집회와 시위엔 불법 체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멕시코계를 비롯, 아시아계와 중동계 이민단체, 종교계와 인권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틀간 주최 측 추산 최대 200여만명에 이르는 시위대는 미 행정부와 의회에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20면>

미국 내 각 한인단체도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시위에 참여, 소수민족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불법 체류자 합법화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20면>

그러나 이날 발표된 워싱턴 포스트와 ABC TV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응답

자의 4분의 3이 미 정부의 불법이민 방지·단속 대책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날 시위에 대해 불법 이민 반대자들은 "불법자에게 시민권을 쥐선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특히 휴스턴 지역에서 불법이민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을 선동하는 전단이 뿌려지기도 했다고 휴스턴 TV 방송은 보도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노스캐롤라이나 살트 등에선 주로 멕시코계 주민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시위대에 합류, 맨먼저 시위를 벌였으며, 워싱턴과 뉴욕에선 오후에 본격 시위가 벌어졌다.

워싱턴에선 당초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조항을 담은 상원의 이민법 개정안 처리를 축하하는 집회를 예정했으나, 지난주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10만여명이 백악관 인근을 거쳐 의사당을 바라보는 워싱턴 기념탑 광장에

모여 하원에서 가결된 '반(反)이민법' 위싱턴 집회에 참석한 에드워드 케네디(민주,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이날 시위를 과거 흑인 민권 운동에



10일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반 이민법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콜로라도 주립대 캠퍼스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여대생들 사이로 시위대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유하면서 "미국인들이 이번에는 우리의 이민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의 이민 미래에 대한 지지를 위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일 시기"라고 역설했다.

상원의 타협안 마련을 주도했던 케네디 의원은 이어 하원의 공화당측이 "수많은 개인들의 마음과 영혼을 자극했으며 공포와 불안감을 부추겼다"고 공화당측을 비난했다. /연합뉴스

미국의 외교소식통은 11일 "중국측의 요청에 따라 북한과 미국이 회동에 응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회동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중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중,미 수석대표가 도쿄의 중국대사관에서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계관 부상과 힐 차관보간 회동은 불투명했다. 6자회담 당사국 대표들이 회담 재개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어렵게 모였지만 정작 회담의 앞길을 막고 있는 갈등의 당사국인 북미 수석대표가 만나지 못한다면 이번 '도쿄 회동'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측은 현재까지 북한과 회동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전날까지 북미 회동에 적극성을 보이던 북측도 힐 차관보의 싸늘한 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듯 양자 회동 성사

북·중·미 비공식 전격 회동

도쿄대화, 中 우다웨이 제의로 막판 성사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동북아시아 협력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북·중·미 수석대표간 비공식 3자 회동을 11일 밤 이뤄졌다. 이날 회동은 우다웨이 부부장의 제의로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의 외교소식통은 11일 "중국측의 요청에 따라 북한과 미국이 회동에 응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회동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중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중,미 수석대표가 도쿄의 중국대사관에서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계관 부상과 힐 차관보간 회동은 불투명했다. 6자회담 당사국 대표들이 회담 재개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어렵게 모였지만 정작 회담의 앞길을 막고 있는 갈등의 당사국인 북미 수석대표가 만나지 못한다면 이번 '도쿄 회동'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측은 현재까지 북한과 회동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전날까지 북미 회동에 적극성을 보이던 북측도 힐 차관보의 싸늘한 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듯 양자 회동 성사

미국의 외교소식통은 11일 "중국측의 요청에 따라 북한과 미국이 회동에 응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회동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중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중,미 수석대표가 도쿄의 중국대사관에서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계관 부상과 힐 차관보간 회동은 불투명했다. 6자회담 당사국 대표들이 회담 재개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어렵게 모였지만 정작 회담의 앞길을 막고 있는 갈등의 당사국인 북미 수석대표가 만나지 못한다면 이번 '도쿄 회동'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측은 현재까지 북한과 회동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전날까지 북미 회동에 적극성을 보이던 북측도 힐 차관보의 싸늘한 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듯 양자 회동 성사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동북아시아협력대회(NEACD)에 참가한 미국 6자회담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중국 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11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여부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힐 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미 수석대표 조찬회동 직후 "6자회담을 보이겠다는 사립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했고, 김 부상은 전날 '무조건적 6자회담 복귀'라는 힐 차관보의 입장에 변화 기미가 없자 "그렇게까지 해서 만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

"美, 북한 선박 제재 내달 8일 발동" | 재무부 관보에 규칙 개정 공고

미국 정부는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를 내달 8일 발동한다고 고도(共同)통신이 11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고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미국 시민과 기업, 미국에 지점이나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북한 선박의 보유와 이용, 선박보험 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한다고 관보에 공고했다.

재무부가 지난 6일 공고한 '외국

자산관리규칙'은 미국 시민과 미국내 거주자, 체재자, 미국의 사법 관할하에 있는 미국기업과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북한 선박을 '보유, 임대, 가동'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 선박에 보험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개정 규칙은 내달 8일 발효된다.

미국 정부의 이번 규칙개정은 클린턴 행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을 겨냥해 2000년 완화한 경제제

재조치를 재차 강화한 것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개정은 반년전부터 정부내에서 검토돼 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선박의 미국 기항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은 연간 100만달러에도 크게 미달된다.

그러나 금융제재를 이유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김정일 체제에 대한 압력강화방안의 하나로 '정치적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고도통신은 풀이했다. /연합뉴스

LA 한인 또 참변...일가족 3명 충격 사망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50대 한인 이 두 자녀를 차안에 태운채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어 또 다시 50대 한인 일가족4명이 총격을

당시 9일(현지시간) 오전 9시50분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북쪽에 인접한 에코파크의 한 아파트에서 한인 일가족 4명이 머리에 총격을 받고 쓰러져 있는 것을 교인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발견 당시 가장인 김모씨(54)와 부인 김모씨(49) 및 아들(10) 등 3명은 숨진 상태였고, 딸(16)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요일인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파트로 찾아가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교인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5구경 권총 한 자루를 손에 쥐고 발견됐던뒤서 이에 따라 김씨가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한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중도좌파연합 지지자들이 11일 중도좌파연합 본부 앞에 마련된 무대 앞에서 총선승리에 환호하고 있다.

伊 총선 좌파연합 하원서 승리

과반 확보...프로디 재집권할 듯

지난 10일 이틀 간의 투표가 끝난 이탈리아 총선에서 로마노 프로디 전(前)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연합이 하원에서 승리했다.

반면 하원에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연합의 의석이 1석 앞섰으나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해외거주자 대표 선출 부재자투표 결과에 총 6석이 달려 있어 막판까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최종 집계 결과 중도좌파연합의 득표율은 49.8%이었으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연합은 49.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불과 0.1% 포인트 차이지만 이탈리아 선거법에 따르면 승리한 쪽이 의석의 55%를 갖도록 돼 있어 중도좌파연합이 총 630석인 하원의석 가운데 340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이 된다. /최진만기자 man21@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무엇이 공법이냐?

- 과시비200%까지 절감
- 작업공법 표준시공수준에서 수월
- 기공시공법 위험없고, 상충없는 속도
- 물도 보물기금 100%

무엇이 공법이냐?

- 공정공법, 공법신개념
- 공정공법, 공법신개념
- 공정공법, 공법신개념
- 공정공법, 공법신개념

무엇이 공법이냐?

- 공정공법, 공법신개념
- 공정공법, 공법신개념
- 공정공법, 공법신개념
- 공정공법, 공법신개념

무엇이 공법이냐?

- 공정공법, 공법신개념
- 공정공법, 공법신개념
- 공정공법, 공법신개념
- 공정공법, 공법신개념

태양광주택보증금, 70% 무상보조 실시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무상 보조금 신청 접수, 신속순 마감

정부 무상보조 신청 접수

- 신청 대상: 태양광 발전기 설치 예정인 주택용 건물주
- 신청 기간: 2006년 4월 12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신청서 접수처에 제출
- 신청처: 신청서 접수처
- 신청 대상: 태양광 발전기 설치 예정인 주택용 건물주
- 신청 기간: 2006년 4월 12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신청서 접수처에 제출
- 신청처: 신청서 접수처

태양광 정부 무상지원 사업부

630-1800 (062) 369-1800
630-7704 (061) 242-7704